

딩링(丁玲)의 삶과 문학에 나타난 여성주의 고찰

임태우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A Study on Feminism in the Life and Literature of Ding Ling

Tae-Woo L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reation, Semyung University

요 약 한국과 중국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유사한 문화적 이념체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바로 그것으로 한국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와 결합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중국여성들의 신여성으로서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비교 문화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20년대 신문학 운동 시기에 등장한 이래 역사의 주요 시기마다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선진적 담론을 이끌어냈던 중국의 걸출한 작가이자 여성주의의 대변인이었던 덩링(丁玲)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 대표작인 <소피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와 해방구 옌안에서 발표한 <3.8절 유감(三八節有感)>을 중심으로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관통했던 그녀의 삶과 문학의 변화추이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여성주의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덩링, 중국, 여성주의, 정치, 여권

Abstract China,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shared similar ideological system with Korea historically. That is confucian patriarchy, which later combined with socialism and capitalism respectively. Therefore, the hardship that modern chinese women had to go through in the course of great social changes would provide meaningful cross cultural insights in various women issues in Korea. Thus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Ding Ling, who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first women that brought the feminism up in China. One of her early works, <Miss Sophie's Diary> and <Thoughts on March 8> from Yan'an days were analyzed to mirror current feminist movement.

Key Words : Ding Ling, China, Feminism, Politics, Women's rights

1. 서론

전통적으로 중국사회는 양성관계(兩性關係)에 관한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적 이념체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유교적 가부장제'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문제는 조선시대 중기 이래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전통적인 이념체계가 자본주의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동일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이념체계를 공유하면서도 우리와는 달리 사회주의체제로 편입된 독특한 사회의 한 예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여성들의 경험은 '유교적 가부장제+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조건을 지닌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비교 문화적 시각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문제 해결이 사회주의적 혁명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6 Research Grant of Semyu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Tae-Woo Lim (twtwmm@semyung.ac.kr)

Received December 18,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February 7,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통해서 가능하다는 실천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가 및 이론가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한 실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그간 죽의 장막이라 칭할 만큼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된 소위 '중국적 사회주의' 양태를 띄고 있으며, 이 전무후무한 거대한 실험과정에서 중국의 여성주의 또한 재고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중국에서 여성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이미 '해방'되었다고 표현한다.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해 일견 남성과 평등해 보인다. 하지만 현대 중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도 대부분 국가 여성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들은 호소한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해방'된 중국 여성들 또한 성폭력 및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적 체제와 무관하게 여성운동이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유일 것이다. 일찍이 여성학자 조세핀 도노번(Josephine Donovan)은 여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전승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든 노예 상태의 케케묵은 패턴들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이고, 피땀 흘려 얻은 자유들을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1].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중국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며 동시에 개인으로서 한 여성이 걸었던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최초로 여성주의를 대변하고 몸소 실천했던 중국 여성작가 덩링(丁玲)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 현대문학사에 있어 덩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대표적 작가인 동시에 혁명가로서 역사적 중요성 또한 상당하다. 덩링이 이렇듯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녀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생애가 갖는 중국 현대사와의 밀접한 관련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거대한 역사적 풍랑 앞에 한 개인은 나약한 존재이기 마련이지만 덩링은 시대에 순종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였다. 무엇보다 덩링은 역사의 주요 시기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여성에 관한 선진적 담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공

동체가 양성 평등을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그와 비슷한 시대를 관류했던 인물들은 많지만, 여성작가 중에서 창작이나 사상에서의 변화나 정치적 역정이 덩링만큼 흥미로운 인물은 드물다. 본 논문은 덩링의 삶과 문학적 여정의 변화, 특히 대표작인 <소피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와 1942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쓴 <3.8절 유감(三八節有感)>을 고찰함으로써 그 당시와 비교하여 오늘날 여성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초기 작품의 시대적 배경

덩링은 1920년대 신문화 운동 시기에 등장한 중국의 작가 가운데 가장 긴 기간-반세기가 넘는-동안 창작을 지속했던 작가다. 문화대혁명 시기 감금당해 작품을 쓰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망해가는 청 제국 말기(1904년)에 태어난 덩링이 세상을 뜬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시장주의 경제개혁을 실행하던 1986년이었다.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부터 5.4운동, 국공내전, 공산주의 중국의 수립과 그 좌절을 몸소 겪은 덩링은 각 시대의 전환점마다 변화의 중심에서 있었으며, 그런 만큼 시대적 변화와 덩링의 창작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적어도 2,2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성 독선주의(쇼비니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열등한 성(性)을 통치하고 제한하기 위해 잘 고안된 규칙의 유산을 지켜왔다. 전통사회에서는 무지한 농민들조차도 그 규칙 중의 하나인 삼종지도(三從之道)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즉, 여성은 혼전에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미망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2]. 이처럼 전통적 봉건 사회였던 중국에서 1919년 5.4운동이 일어난다. 초기 북경대학 학생들이 중심이었던 이 애국운동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오랫동안 봉건사회 속에서 고통 받던 중국인들로 하여금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가부장적 전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들 또한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지식인들은 문학을 통해 자아각성과 개성해방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주제로 많은 작

품들을 창작하였다. 누구보다 예민했던 딩링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919년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14살이었다. 우리 모녀는 모두 이번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번 운동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나는 작은 세상에 파묻혀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중략) 그러나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고 국가를 가난으로부터 구제하여 수 천 년 간 계속된 봉건사회의 속박과 백여 년간의 식민지 처지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3]” 이처럼 딩링은 5.4운동 시기에 유년기와 청년기를 겪으면서 5.4운동의 아이로 성장하였다. 신여성 1세대라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낡은 봉건사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기존 구체제를 개조하겠다는 어렵풋한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이에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한다[4]. 이러한 딩링의 심적 고뇌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그녀의 초기 단편소설 집인 <어둠속에서(在黑暗中)>, <자살일기(自殺日記)>와 1930년대 초 발간된 단편소설집 <한 여인(一個女人)>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신세대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이 시기 소설들은 그 당시 이미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의식으로 문학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년대 딩링의 작품 중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은 역시 1927년 작 <소피여사의 일기>일 것이다. 이 단편은 ‘죽은 듯이 고요한 문단을 공격한 하나의 폭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서사와는 다른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데, 딩링은 일기체 형식을 빌려 도발적인 성적 욕구와 냉철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전통적인 성별 질서를 전복하는 ‘소피’라는 인물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탄생한 ‘소피’는 근 한 세기 동안 서구 문화와 도시적 감수성을 대표하는 ‘신여성’으로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지식여성을 ‘소피형’이라고 칭할 만큼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피여사의 일기>를 발표한 1928년은 5.4운동이 퇴조하고 있던 시기이기는 했지만 딩링에게 있어 반봉건, 자유연애, 여성해방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유가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전통사회는 여성들에게 남존여비, 삼종지도로 대변되는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지만, 1919년 11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부모의 독단적인 정혼

에 항거하여 한 여성이 꽃가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전통적인 혼인이 가지고 있던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성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연애의 자유와 결혼의 자주 문제는 중국 현대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자주적으로 자신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5]. 신문화운동의 사상가인 리다(李達)는 ‘여성해방론(女性解放論)’이라는 글에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이 ‘사람’임을 알아야 하며, 정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6].”고 말했다.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과 신교육은 당시 중국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진보적인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자란 딩링은 더 나아가 당시의 종법제도에 반대, 부모의 성을 버리고 딩링이라는 필명을 사용함은 물론, 전통적인 혼인 제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동거를 감행하였다. 딩링은 원래 사촌 오빠와 정혼관계였으나 이를 파기하고 후에 알게 된 시인 후예핀(胡也頻)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혼외 동거는 5.4운동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 가운데서도 극히 드문 일로서 이것만으로도 전통에서 해방된 용감하고도 선구적인 신여성의 삶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7]. 이렇듯 딩링은 창작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후 세 번의 결혼이 말해주듯 당시 봉건적 통념을 뛰어넘는 행보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2.2 초기 작품에서의 성별의식과 여성주의

<소피여사의 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그, 이 나선 남자에 대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의 호리호리한 몸,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 얇고 작은 입술, 부드러운 머릿결, 모두 사람의 눈을 번쩍 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또 말할 수 없고 잠을 수 없는 그 어떤 매력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중략) 나는 그 선홍색의 부드러운 깊이 들어간 입가를 보았다. 마치 어린 아이가 사탕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매력적인 입술을 바라보고 있다고 어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8]”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점으로 남성의 신체와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표현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특히 여성이 남성을 향해 느끼는 성욕에 대한 솔직한

묘사는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고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많은 젊은이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다. 소피에게 있어 연애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원평은 이미 이사 오고, 원린은 오히려 이사를 갔다. 세상에 아이를 낳을까 두려워 같이 살지 못하는 한 쌍이 있을 수 있다니. (중략) 나는 그들을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금욕주의자 같으니라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알몸을 꺼안아서 안 된다는 말인가? 왜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기도 전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가? 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이처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9].” 소피는 당시 전통사회에서 금기시하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남녀가 사랑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성이나 과학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동시에 봉건적인 잔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의 딜레마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는 내 마음대로 나의 충동과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놔두지 않는다. 나의 욕망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억누르며 참아야만 하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그 명함을 읽었다.[10]”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성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덩링은 신여성임을 외치고 자유연애를 추구하면서도 뿌리 깊은 전통적 관념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소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여성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다른 여성작가들도 반봉건을 기치로 내건 작품들을 쓰긴 했지만, 대부분 작가들이 여성문제를 결혼과 사랑이라는 한정된 소재와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뤘던 것과 달리 덩링은 여성 개인의 애정사와 더불어 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차별과 진입관등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그 비판적 시각을 중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처녀작 <명커(夢珂)>에도 이러한 관점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때? 나이도 많지 않고, 생김새도 괜찮지. 당신 보기에는 어때?” 그 말라깽이는 그녀를 또 한 번 쳐다보고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은데, ……” 그녀는 흠뻑했다. 그녀는 자신 앞에서 마치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녀의 외모를 평해도 괜찮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치지도

못하고, 내키는 대로 몇 마디 욕을 퍼붓지도 못하고 그저 울분을 삭혀야 했다. 수치심에 온 몸이 마비되어 버렸다 [11]. 주인공 명커는 봉건 가정을 떠나 상해로 온 여성이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당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식인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을 구제 해줄 거라는 상상도 잠시, 자신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한다. 결국 당시 신여성들이 흠모하던 영화배우를 꿈꾸며 영화사를 찾아가지만 명커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 감독과 제작자인 것이다. 명커가 마주해야했던 당시 중국사회는 여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오늘날에 비추어 하등 다를 바 없다.

한편 덩링이 시도한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당시의 전통적인 서사 윤리에 도전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소피라는 인물이 당시 주류 남성문학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기존의 서사윤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작가들이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남성문학의 역사와 권위에 중대한 문제 제기가 된다. 자기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성 자아의 창조는 여성이 타자적 존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피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금기와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인하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덩링은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역사의 주체로서도 나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성 담론이 사회적 성의 영역에서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옮겨지고 가장 본질적인 성욕의 영역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마오똘(毛盾)은 소피의 형상을 5.4 이후 해방된 젊은 여성 중 성애(性愛)에 대한 모순적 심리를 대표하는 인물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12]. 덩링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행보는 그녀의 개인사에서도 드러난다. 덩링은 첫 번째 남편 후예핀과의 관계도 동거로 시작했고 후예핀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후예핀이 사형당한 그 해 평과와 결혼하였고 38살에는 13살 연하인 천밍과 만나 결혼하기도 한다. 남자가 평등하다던 연안에서조차 덩링의 세 번째 결혼, 특히 13살 연하남과의 결혼은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는 후에 연안으로 돌아간 후 정풍운동(整

風運動)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덩링은 여성으로서의 시각과 견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한편 다른 여성작가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인이 주로 전통사회의 구속에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덩링은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내는 여성의 문제에 더 주목했다. 그녀는 교사, 학생, 기녀, 농촌 여성 등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들을 소설 속에 형상화하여 이들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겪는 문제점들이 단순한 성차별을 넘는 권력과 구조의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는 훗날 공산당 가입과 사회주의 실현에 헌신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덩링은 또한 성차로 인해 서로 억압하고 중속 받는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적 관계를 여성문제의 근본으로 인식한 1920년대 중국 여성작가들과는 달리 성별을 초월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였다.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멀리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여성작가들이 여성들을 신여성과 구여성으로 나누고 구여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덩링은 여성간의 자매애를 묘사하여 세대 간 구분이 무의미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직 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과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권력관계로 여기는 기존의 여성주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1930년대 초반에 상해의 한 출판사가 ‘여작가(女作家)’라는 칭호로 그녀와 출판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원고는 팔지만 여(女)자를 팔지는 않습니다.”[14] 이 일화만 보아도 그녀가 당시 여성작가들에 비해 얼마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충만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덩링이지만 이후 절친한 친구 왕젠홍의 죽음, 남편 후예핀의 국민당에 의한 처형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심한 내적 변화를 겪는다. 공산화가 진행 중이던 당시 상황에서 단순히 젊은 여성으로서의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그녀의 창작 경향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즉 여성의 자아 탐색과 개성 추구라는 주제들로 작품을 계속해나가기에는 이미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처형당한 후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덩링의 좌경사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1940년 이후 작품들은 초기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한 사람이 쓴 것인지 의심이 될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덩링 스스로 “창작은 정치 행동이고, 작가는 정치화된 사람이다.[15]”라고 얘기할 만큼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계급 문학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작가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상황과 덩링의 변화된 개인적 신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 <태양은 상견하를 비추고(太陽照在桑干河上)>이다. 이 작품으로 덩링은 중국인 최초로 스탈린 문학상 2등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초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소피여사의 일기>와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지만 <태양은 상견하를 비추고>는 소재와 주제 모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느껴진다. 그렇다고 덩링이 초기의 여성주의적 관점과 사고를 모두 버린 것은 아니었다.

2.3 덩링의 작품 변화와 <3.8절 유감(三八節有感)>의 파장

남편 후예핀이 국민당에게 황망하게 처형당하자 덩링은 점점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곧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좌익문학에 탐닉하여 작품을 써 가던 덩링에게 부권문화와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 처해있던 중국 사회란,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즉, 혁명을 통한 사회개조만이 낙후된 지위에 처해 있던 여성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공공영역에서의 지위향상, 여성의 독립과 남녀평등을 더 빨리, 더 확실히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었다. 덩링에게 있어 공산주의 혁명은 여성해방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고, 해방구로 간 덩링은 충실한 혁명전사로서 소임을 다한다. 홍군에 들어와 열심히 전장을 오가며 혁명 활동을 하는 그녀에게 마오쩌둥이 직접 “어제의 문학소녀가 오늘의 전사라네.(昨天文小姐, 今日武將軍)”라는 사(詞)를 보냈을 정도로 한다.

하지만 1942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해방일보·문예란』에 쓴 <3.8절 유감> 이후 덩링의 화양연화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3.8절 유감>은 덩링이 연안에서 생활한지 4년 정도 지난 후에 쓴 글로 거창하게 말하자면 연안사회에 존재하는 남성 우위의 섹스=젠더

제도를 직접 들어 문제화한 작품이다. 덩링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의 여성학자 타니 발로우(Tani E. Barlow)는 <3.8절 유감>과 문학작품에 표현된 덩링의 여권주의>라는 논문에서 “덩링은 단순히 여성을 소재로 하는 작가가 아니라 여권주의자이다.[16]”라고 표현, <3.8절 유감>을 중국 최초의 여권선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고작 2천여 자(字)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글은 ‘여성주의’의 주장자이자 연안에 처음 받을 들인 문인으로서의 덩링이 당시에 연안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그저 솔직하게 서술한 것일 뿐이었다. <3.8절 유감>은 ‘여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시대가 되면 중시되지 않고 특별히 들고 나올 필요가 없어지게 될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짧은 짧은 문장은 덩링이 연안에 들어온 후 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쓴 <내가 안개마을에 있었을 때(我在霞村的時候)>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전시에 여성이 겪는 불행은 직접적으로 강간을 가한 일본군, 즉 외부의 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을 향한 내부의 시선 또한 예상치 못한 가해로 작동한다. 일본군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당시 뿌리 깊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더 큰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덩링은 <내가 안개마을에 있었을 때>의 주인공 정정(貞貞)의 모델이 된 인물과 그녀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대단히 동정했다. 전쟁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그녀도 겪어서는 안 될 많은 고난을 당했다. 운명 속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일을 잘 모르고 그녀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에게 능욕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경멸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17]” 당시 덩링은 연안기지에서 혁명가로서 문화사업 부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 전까지 주로 전시 동원을 고무하는 작품을 썼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녀는 중국 공산당이 전시에 여성을 동원하여 ‘침대 위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혁명주체(농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문제 삼았다. 즉, 해방구 안에서 공산당의 혁명주체(농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성에 관한 답문이 이미 사회주의 여성해방정책의 차원에 속하는 공적영역의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사정과

비교하면 덩링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앞서간 것인지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위안부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과 관련한 것이겠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유교적 가치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덩링은 일찍이 피해자들을 대하는 내부 주체들의 인식에 대해 더 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 다시 <3.8절 유감>으로 돌아가면 비록 마오쩌둥이 여성의 혁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에는 남녀 구분이 없고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선언을 했지만 연안이라고 해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계급 해방으로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하는데, 사회에는 성차별의 현상이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왜 전통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왜 현대 여성은 평등의 대가로 소외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가?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곤경은 어디에 있고 여성들이 해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무기로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문제 제기가 곧 덩링의 딜레마이며 또한 중국의 여성들이 현대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부딪힌 곤혹이라고 할 수 있다[18].

당시 상황을 연구한 케이 존슨(Kay Ann Johnson)에 따르면 연안기(1936년~45년)에는 근거지의 경제적 위기와 반일 전쟁의 긴급성을 이유로 여성해방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성 해방론을 주장하는 여성 지식인은 자주 비판당했다고 한다. 연안에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던 여성 활동가들의 허탈함을 덩링은 비교적 진솔하게 얘기한다. “연안의 여성들은 중국의 다른 지방에 비하면 행복한 편이다...”라고 시작하는 글은 이어 연안 사회가 양산하고 있는 성차별 구조와 혁명 사업에 참가한 여성들이 겪어야했던 딜레마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해방구에 온 여성들은 전통사회에 항거해 자신들의 해방, 즉 여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혁명에 뛰어들었으며 스스로 구시대적 여성성을 버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건 ‘연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조롱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변함 없는 강요였다. 덩링은 ‘연안의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되고 이후 수많은 루머 제조의 대상으로 영구히 모욕당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은 누구든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

의 운명 또한 각각이다. 누구는 ‘양털로 된 따뜻한 모포에 감싸여 보모 품에서, 누구는 더러운 면포에 싸여 침대 머리맡에 던져져 울며 자란다.’ 그러나 아동 수당이 없다면 고기 맛도 볼 수 없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매주 사교댄스장에 가는 여성도 있다. 이처럼 덩링은 해방구라는 연안에서도 인민은 평등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나 혁명 주체들의 인식 또한 여전히 봉건적인 인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권력을 갖지 못한 대다수 여성들, 즉 ‘청운의 뜻을 품고 힘든 투쟁 생활을 버텨온’ 여성들이 어떻게 ‘낙오자’가 되어 가는가를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해 달라고 호소한다. 능력이 출중하지만 자신의 사업을 희생하며 현모양처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도 처음엔 칭송받지만 ‘십 수 년이 지나 피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털은 얇어지고 최후에는 한층의 애교도 생활의 피로에 빼앗겨 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들들은 ‘가정으로 돌아온 노라’라는 조소와 ‘낙오자’라는 비극적인 처지와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구 사회에서는 ‘불쌍하고 박복한 여자’라고 동정이라도 받았지만 ‘여기’에서 그 모든 결과는 스스로가 뿌린 씨앗이며 스스로 자초한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덩링은 이 작품에 대해 자신의 ‘피와 눈물을 쏟아 거기에서 나의 오랜 세월동안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열렬한 희망을 담았다.’[19]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 짧은 잡문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과연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혁명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부여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양성관계의 불합리성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과의 양성관계에서는 전통 사회의 여성상을 요구받았고 집단과 혁명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남성화되기를 강요당했다. 해방구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성을 버림으로써 남성화되거나 전통적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여성주의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성찰이 없던 상태에서 무산계급 해방운동과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최우선 과제는, 여성의 희생은 필연적인 것이며 여성에 대한 억압을 언급하는 자체도 문제 삼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결국 연안문제좌담회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정풍운동(整風運動)에서 덩링은 ‘해방일보’ 주편에서 전격 해임되고 신랄하게 비판당한다. 덩링은 결국 스스로 자아비판을 하고 한발 물러서는데 항일투쟁 및 국민당과의 내전 속에서 ‘우선 우리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짧은 잡문에 마오쩌둥을 위시한 당 지도부가 가한 전에 없는 신속하고도 혹독한 비판은 당시 이 글이 얼마나 연안 사회 내부의 행태와 여성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파급력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비록 정풍운동 이후 덩링은 두 번 다시 여성의 억압에 대한 문제를 작품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부녀공작 방침을 발표토록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그녀의 일생이 곧 그녀의 대표작이다”라는 말로 덩링의 삶을 평했다. 덩링이 생존했던 당시 중국은 급변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 1911년대에는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1949년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후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뒤를 이어, 1966년부터 전국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부르주아계급의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요소를 타도하기 위한 문화대혁명이 중국을 휩쓸었다. 이 시기 덩링 또한 홍위병들에게 온갖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토록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념을 지키며 자유로운 영혼과 뛰어난 필력으로 불평등한 여성 지위에 불만을 갖고 대담하게 글을 썼던 작가가 바로 덩링이다.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소리 높여 이야기 하지만 그 목소리가 현실에서도 육성으로 울리는 일은 드물다. 덩링은 격변의 소용돌이에서도 끝내 자신만의 시각을 잃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란만장한 덩링의 삶과 작품 중에 초기 작품인 <소피여사의 일기>와 연안으로 들어간 후 발표된 <3.8절 유감>을 중심으로 덩링의 여성주의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주의 주제가 농후했던 초기 작품의 사회배경과 초기 작품에 나타난 성별의식과 여성주의 시각에 대해서는 <소피여사의 일기>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고 <3.8절 유감>에 대해서는 덩링의 문제의식에 대한 당시 당 지도부를 위시한 남성들의 이례적인 비판의 연

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덩링은 5.4운동의 영향 아래 성장한 당시 다른 여성 작가들이 여성만의 문제에 천착했던 것과 달리 젠더 이전의 인간의 삶과 남녀 간의 평등, 개성 해방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실패와 좌절들을 통해 여성문제와 더불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들을 솔직히 묘사하였다. <소피여사의 일기>는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지만 소설 속의 적극적 연애관은 당시 남성들에게 성적 문란, 도덕적 방탕으로 간주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작품이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이 발표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성들에 대한 봉건적 가치관은 완벽히 사라졌을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날씬한 몸매를 요구하고, 순결을 강조하며 여성으로서의 미덕을 갖추기를 원한다. 아직까지도 여성해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는 미약하다. 덩링은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불만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소리 높여 요구하고 스스로 혁명에 참가하라고 얘기한다. 덩링은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혁명에 뛰어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침과 비판에 직면했지만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마다 덩링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큰 화두를 던졌고, 당시로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녀의 의식과 예민한 감수성은 대중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사회 여성 의식의 변화와 발전에 동력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삶과 문학의 발자취가 덩링을 현대 중국문학사에 있어 현재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며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의 여성들과 여성주의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Josephine Donovan, *Feminist Theory*, Translated by W. Lee, Munye Publishing, 1998.
- [2] Margery Wolf, *Women in Chinese society*, Translated by O. Moon, Hanwul Publishing, 1991.
- [3] Ding Ling, *My life and creation*, Ding Ling Quanji vol.8, Hebei People's Publishing, 2001.
- [4] Ding Ling, *A piece of my middle school life—a letter to my granddaughter*, Ding Ling wenji vol.5, Hunan People's Publishing, 1983.
- [5] S. Kim, *Contemporary literature and cultural change of China*, Hakgobag Publishing, 2006.
- [6] Yang Yi(楊義),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novel (中國現代小說史)*, Beijing Renmin Publishing, 1998.
- [7] Ewha Woman's University-Office of Chinese Women History, *Chinese Women-From myth to revolution*, SeoHaemunjip Publishing, 2006.
- [8] Ding Ling, *Diary of Miss Shafei(莎菲女士的日記)*, Hebei People's Publishing, 2001.
- [9] Ding Ling, Same book as above, pp51
- [10] Ding Ling, Same book as above, pp47
- [11] Ding Ling, Same book as above, pp39
- [12] Wangzengru(王增如), Lixiangdong(李向東), *Ding Ling's Long Spectrum(丁玲年譜長編)*, Tianjinrenmin Publishing, 2006
- [13] J. Jung, *A Study of Ding Ling's Novel in 1920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 thesis, 2008.
- [14] Xu Long Lv(呂旭龍), "Claiming, Distorting and Reinterpreting of Gender Equality", *J.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vol. 25, pp270, 2011.
- [15] Ding Ling, *Creative Theory of Ding Ling(丁玲 論創作)*, Shanghai Wenyi Publishing, 1985.
- [16] Tani E, Barlow, *Thoughts on March 8th and the Literary Expression of Ding Ling's Feminism*, Hunan People's Publishing, 1985
- [17] Ding Ling, *Talking about my Creation(談自己的創作)*, Ding Ling wenji vol. 5, Hunan Renmin Chubanshe Publishing, 1984
- [18] Tani E, Barlow, *Thoughts on March 8th and the Literary Expression of Ding Ling's Feminism*, Hunan People's Publishing, 1985
- [19] Ding Ling, *The literary and art circles have a solution to Wang Shiwei's attitude and reflection (文藝界解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 Jiefangribao wenyi, 1942.

임 태 우(Tae-Woo Lim)

[정회원]



- 1997년 8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CUNY Media Arts Production (M.F.A.)
- 2008년 9월 ~ 현재 :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E-Mail : twtwmm@semyung.ac.kr
- 관심분야 : 시나리오, 영상편집, 영상연출, 뉴미디어